

열렬한 사랑, 의도적인 죽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고난은 그분의 자발적인 의도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요일 3:16). 예수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십자가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완전한 의도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다섯 가지 의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뺐 바로 직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의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마 26:52-54).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성경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그러한 선택을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 26:54에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경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잘 안다. 나에 대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다."

둘째로, 예루살렘, 즉 사자굴로 가지겠다는 반복적인 말씀에서 주님의 자발적 의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막 10:32-34)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즉 성경말씀에 따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았을 때,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눅 9:51)

셋째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사 50:6)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당하고, 비열하고, 무모한 사람들이 일으킨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통과 수치의 매순간마다, 예수님은 즉시 공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분의 뺨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침을 뱀도록 자신의 얼굴을 내주었습니다.

넷째로 베드로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의도성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벧전 2:23)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불법에 대해 "불법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롬 12:19)).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의 의도성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곳은 요 10:17-18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 10:17-18)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분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요도 받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주님을 몰아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한 순간의 불법에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요일 3:16)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여 우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깊은 경험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4-15).